

# Zola 생운

첫해~작년까지의

## ebs 수특 문항

## 주제별 모음(1)

## 1~2단원

1. 개념 공부+기출 문제 풀이까지 끝낸 분들을 위한 용도임.
2. 주제별로 공부하면서 진행해도 되고, 처음부터 쭉욱 봐도 되고, 킬러나 약점 주제 중심으로 봐도 됨. 님들이 알아서 하셈. 1번 풀고 버리면 됨.
3. Zola가 답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음. 틀리면 우선 자신을 의심할 것. 그리고 내용 확인할 것. 그래도 이상하다 싶으면 대부분은 Zola가 잘못된 것임. 그러니 반드시 이상한 것은 질문할 것. Zola는 오류가능한 존재임.

열공+즐공=대박!!!

■ 주제 목차 ■

Zola 생운 1 - 개념의 모든 것		Zola(김준호) 선생님	
대단원	주제 번호	주제	백지 복습 정도
1	1-1	윤리학 구분	
	1-2	동양 윤리	
	1-3	서양 윤리	
	1-4	도덕적 추론	
	1-5	밀의 자유론	
2	2-1	죽음관	
	2-2	낙태, 안락사, 뇌사, 생명복제	
	2-3	성·사랑	
	2-4	가족 윤리	
3	3-1	직업 사상가	
	3-2	직업 윤리	
	3-3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니부어)	
	3-4	정의 기본+아리스토텔레스	
	3-5	분배정의	
	3-6	소수자우대정책	
	3-7	교정정의	
	3-8	국가관	
	3-9	시민불복종	
4	4-1	과학기술과 윤리	
	4-2	정보윤리	
	4-3	환경윤리(서양의 자연관)	
	4-4	환경문제와 미래세대	
5	5-1	예술	
	5-2	의식주	
	5-3	다문화	
	5-4	종교	
6	6-1	소통 윤리	
	6-2	국제관계론	
	6-3	국제평화론	
	6-4	해외원조	
(넉넉하게) 최소 필요 장+a			

# 1-1

## 윤리학의 분류(수특 1강)

\* 번호 보는 법

앞 숫자 : 대단원 번호임

뒤 숫자 : 자료 나가는 순서임

예 1) 2-2 → 대단원 II단원의 2번째 자료라는 의미임(1장임)

예 2) 2-3<sub>1</sub> → 대단원 II단원의 3번째 자료의 첫째장이라는 의미임(2장 이상임)

### zola 풀이

1)[18 ebs 수특]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윤리학은 도덕 문제의 실천적 해결을 핵심 과제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해야 할지 갈등하는 상황에서 도덕 이론을 적용하여 윤리적으로 타당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을: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룸으로써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판단이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의 윤리 이론이 필요하며, 윤리학은 이에 대한 탐구에 주력해야 합니다.

병: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명제의 논리적 타당성 분석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니라, 안락사를 선이나 악으로 규정할 때 선과 악의 의미는 무엇인지, 판단 논리에 모순이 없는지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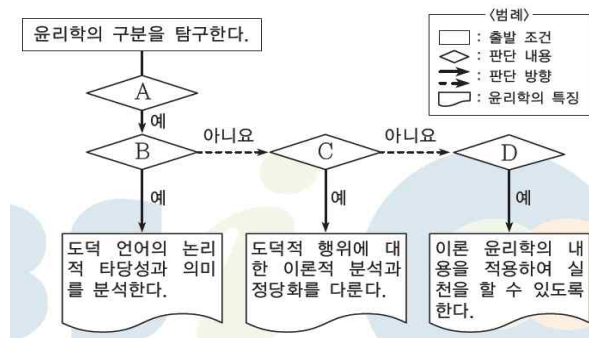
ㄱ. 갑은 각 사회의 도덕 관습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윤리학의 목표로 삼는다.

ㄴ. 을은 윤리학이 사람들이 따라야 할 도덕 원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ㄷ. 갑, 을은 병과 달리 윤리학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당위의 학문이어야 한다고 본다.

ㄹ. 병은 을과 달리 윤리학은 이론의 정립보다 현실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

2)[16 ebs 수특] 그림의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① A: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인가?

② A: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규범과 원칙을 연구해야 하는가?

③ B: 도덕적 논증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윤리학의 주된 탐구 과제인가?

④ C: 일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윤리학의 주된 탐구 과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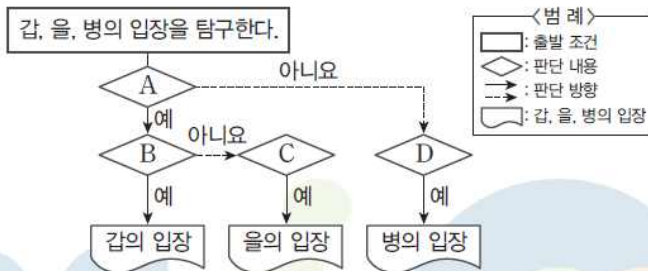
⑤ D: 현실 문제의 해결보다 도덕 원칙을 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가?

3[19 ebs 수특] 아래 두 문제를 푸시오.

**[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 윤리학은 공리주의 윤리, 의무론적 윤리와 같이 어떤 원리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본질로 삼아야 한다.  
 을: 윤리학은 정보 윤리, 환경 윤리, 생명 윤리와 같이 현대인의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병: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이나 풍습과 같은 도덕적인 현상과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3** 갑, 을, 병의 입장을 아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의 기술보다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데 힘써야 하는가?  
 ㄴ. B: 윤리학은 다양한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절한 도덕 이론을 활용해야 하는가?  
 ㄷ. C: 윤리학은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접 학문과 연계해야 하는가?  
 ㄹ. D: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 추론의 타당성 검증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 갑, 을, 병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판 방향	비판 내용
①	갑이 을에게	도덕 현상에 대한 경험 과학적 탐구를 윤리학의 본질로 삼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②	을이 갑에게	윤리학은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구체적 도덕 문제 해결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③	을이 병에게	사회 집단의 구체적인 도덕적 관행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④	병이 갑에게	윤리학은 행위자가 지녀야 할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병이 을에게	윤리학은 당위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4[19 ebs 수특]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자연 현상을 다루는 자연 과학과는 학문적 성격이 다르다. 윤리학은 존재나 사실에 기초해서 성립된 학문이 아니라 당위에 기초해 성립된 학문이다. 따라서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행위 하는가?’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인간이 준수해야 할 보편적인 규범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 **좋음**’, ‘**옳음**’과 같은 윤리학적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윤리학은 ㉠ 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당위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객관적 탐구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② 윤리학 자체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본질로 삼아야 한다
- ③ 도덕적 현상을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④ 특정한 사회의 도덕적 풍습이나 관습을 기술하는 것을 본질로 삼아야 한다
- ⑤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도덕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5[22 ebs 수특] 학생 답안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의 윤리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윤리학은 의무론, 공리주의와 같이 도덕적 행위의 근본 원리로 성립될 수 있는 이론 탐구를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을: 윤리학은 환경 윤리, 사회 윤리와 같이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윤리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윤리학이 ㉠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해야 하며, ㉡ 도덕 판단 기준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을은 윤리학이 ㉢ 현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 경험적 세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현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인간이 따라야 할 이상적인 삶의 방향을 보여 주는 것이 윤리학의 과제라고 본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6[20 ebs 수특]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갑: 우리는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면서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을: 우리는 “인생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윤리학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면서 인간의 삶을 안내하고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윤리학은 당위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하는가?
- ② 윤리학은 행위나 행위자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가?
- ③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개념 분석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 ④ 윤리학은 경험에 근거하여 도덕적 관행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 ⑤ 윤리학은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7[23 ebs 수특] 그림에서 학생들이 모두 옳은 대답을 했다고 가정할 때,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도덕적 가치 판단보다 경험적 사실의 서술을 중시한다.
- ② B는 도덕적 관습에 대한 가치 중립적 탐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③ C는 도덕 법칙의 정립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 ④ A는 C와 달리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중시한다.
- ⑤ B는 C와 달리 도덕적 규범을 탐구하여 이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 1-2

## 동양 윤리(자연관+인간관)(수특 2+11강)

zola 풀어!

8)[15 ebs 수특 활용, 주관식] ㉠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나는 하늘의 의지가 인간에게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갑이라는 사상가가 “성실은 하늘의 도(道)이고, 성실하려는 것은 인간의 도이다.”라고 한 것도 나와 같은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을 사상가는 “하늘은 어질지 않아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마치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라고 하였다. 내가 보기에 을 사상가는 [ ㉠ ]라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본다.

&lt;보기&gt;

- ㄱ. 인간이 가진 도덕성의 근원을 하늘에서 찾을 수 있다
- ㄴ. 하늘이 인간과 다른 존재 모두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 ㄷ.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
- ㄹ. 인간은 하늘의 도를 본받아 인(仁)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9)[20 ebs 수특] (가), (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거늘, 그들을 잡아서 먹거나 해치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거나 해치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다. 모든 땅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온기와 존재는 다 나의 본래 몸이다.
- (나) 자신의 마음을 남김없이 실현하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면 하늘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자신의 본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에 개의치 않고 다만 자신의 몸을 닦아서 명(命)을 기다리는 것이 명을 바르게 세우는 방법이다.

- ① (가)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강조한다.
- ② (가)는 세계의 모든 존재들의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 ③ (나)는 인간이 하늘을 본받아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강조한다.
- ④ (나)는 자연이 무목적의 질서를 담고 있는 무위(無爲)의 체계임을 주장한다.
- ⑤ (가), (나)는 인간과 자연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한다.

10)[15 ebs 수특] 다음 사상의 관점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 세 개의 갈대가 빈 땅에 서려고 할 때 서로서로 의지하여야 서게 될 수 있다. 만일 그 하나를 버려도 둘은 서지 못하고 만일 둘을 버려도 하나는 또한 서지 못하여, 의지하여야만 서게 되는 것이다.
-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滅)하기 때문에 그것이 멸한다. 무명(無明)으로 인해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생기고,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멸한다.

&lt; 보기 &gt;

- ㄱ. 세상 모든 존재는 각각 개별적인 실체임을 인정해야 하는가?
- 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가?
- ㄷ. 상호 의존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가?
- ㄹ. 만물의 불변함을 깨달아 초월적 무(無)의 세계를 추구해야 하는가?

11[18 ebs 수특] (가), (나), (다) 사상의 자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모든 것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성인도 어질지 않아 백성을 모두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 (나)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그것이 멸한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다)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 한다. 그러므로 천지(天地)에 가득 찬 기운은 나의 몸이요, 천지를 운용하는 원리는 나의 본성이 된다.
- ① (가)는 자연을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 파악한다.
- ② (나)는 만물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멸(生滅)한다고 주장한다.
- ③ (다)는 자연을 유용성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본다.
- ④ (가), (나)는 (다)와 달리 인간이 주인 의식을 지니고 자연을 대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해야 한다고 본다.

12[14 ebs 수특 활용, 주관식]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1개~모두)

- (가) 큰 도[大道]가 사라지니 인의(仁義)가 생기고, 지혜가 발달하니 크나큰 허위가 생겨났다.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니 효(孝)와 같은 윤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국가가 혼란에 빠지자 충신(忠臣)이 나타났다.
- (나) 인간의 물질적 욕망은 무한하지만, 재화는 한정되어 있어서 지구상의 모든 자연 자원은 고갈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 스스로 지니고 있는 자정 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자연환경도 황폐화되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다.

<보기>

- ㄱ.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 ㄴ. 자연에 도덕적 원리가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 ㄷ. 자연을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물질 세계로 이해해야 한다.
- ㄹ. 자연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임을 알아야 한다.

13[22 ebs 수특]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도(道)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물건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귀하고 남은 천한 것이다.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귀하고 천한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정해 주는 것이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에 비하여 크다는 입장에서 말하면 만물에는 크지 않은 것이 없게 되며, 그것에 비하여 작다는 입장에서 보면 만물에는 작지 않은 것이 없게 된다.

ㄱ 보기

- ㄱ. 선악이나 시비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인가?
- ㄴ.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 ㄷ. 제도와 규범이 무너져서 사회가 혼란한 것인가?
- ㄹ. 성인이 되기 위해 분별적 지혜를 지녀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4)[21 ebs 수특] 옳은 것은?

(가) 갑: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바탕대로만 따른다면 선하게 될 수 있으니, 이것이 내가 말하는 바의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의 잘못이 아니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을: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본성을 버리고 각기 제 마음만을 따르며 서로의 마음속을 엿보아 천하를 안정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뒤에 문화 따위 장식을 달고 학문 같은 박식(博識)을 덧붙였으나 그런 장식은 소박한 본질을 잃게 하고 박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보기

ㄱ. A: 인간은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ㄴ. B: 선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가?  
 ㄷ. B: 백성이 도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ㄹ. C: 도(道)와 일치되는 삶을 통해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22 ebs 수특] 어떻게 푸는지 알지? 골라!

(가) 갑: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도 있다. 옳음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것이 있고, 그릇된 것으로 말미암아 옳음이 있다. 그래서 성인은 자연(自然)에 비추어 생각한다.  
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나)

보기

ㄱ. A: 사욕을 극복하고 예(禮)를 되찾아 인(仁)을 실현해야 한다.  
 ㄴ. B: 현세의 도덕적 삶이 내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ㄷ. B: 생명에 대한 차별 의식과 사물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ㄹ. C: 연기(緣起)를 깨달아 다른 존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6)[22 ebs 수특]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 사상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의 마음을 텅 비우게 하고, 그들의 배를 채워 주며, 그들의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들의 뼈대를 강하게 한다. 백성을 지식도 없고 욕망도 없게 하며, 지식을 가진 자들이 설치지 못하게 한다. 무위의 정치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게 된다.  
 (나) 천하를 얻는 데에는 원칙이 있다. 백성을 얻으면 이미 천하를 얻은 셈이다. 백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축적해 주고, 싫어하는 바를 그들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군주가 인(仁)을 좋아하면 제후들이 그를 위하여 민심을 몰아다 줄 것이다.

- ① 통치자는 백성에게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인위적인 제도와 덕목이 사회 혼란의 원인임을 간과한다.
- ③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 ④ 타고난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⑤ 무위(無爲)의 다스림이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고 지나치게 강조한다.

17)[21 ebs 수특] 옳지 않은 것은?

(가) 인간은 하늘의 도(道)를 본받아, 다른 인간과 존재를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인(仁)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 인간은 인간의 의지나 욕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를 인식하고,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사례〉

○○지역 △△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A는 중장비를 동원하여 △△산을 대규모로 깎아 내고 거대한 오락 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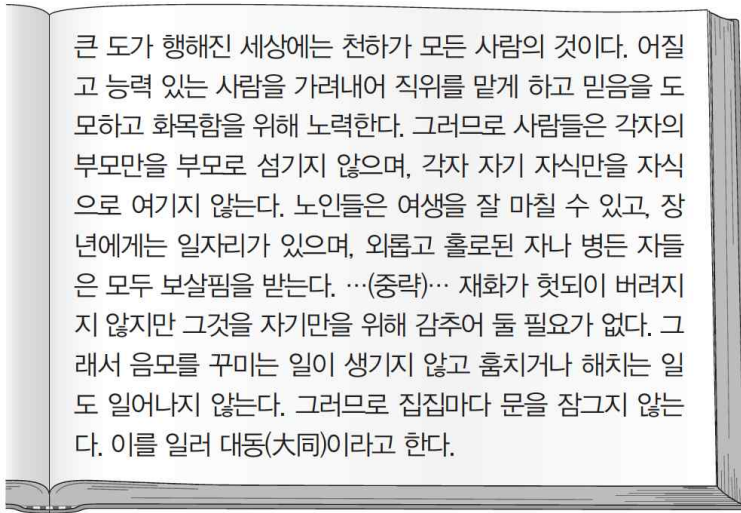
- ① (가): 인간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지향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 ② (가): 인간은 자연의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 ③ (나):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 없는 무질서의 체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 ④ (나):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 ⑤ (가), (나): 인간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18)[23 ebs 수특 변형, 주관식]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있는 대로 고르셈. 있음과 없음은 서로 상대적으로 일어나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며, 길고 짧음은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된 것이고, 높고 낮음은 서로 상대적인 높이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무위(無爲)로 일에 머무르면서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보기>

- ㄱ.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사는 것이 이상적인가?
- ㄴ. 만물을 이롭게 해 주고 다투지 않는 덕(不爭)을 실천해야 하는가?
- ㄷ.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는 덕(謙虛)을 실천해야 하는가?
- ㄹ. 어린아이와 같이 자연 그대로의 순진한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19[23 ebs 수특]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능한 사람이 중용되는 사회이다.
- ②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이다.
- ③ 사회 구성원 모두를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이다.
- ④ 부국강병을 통치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 사회이다.
- ⑤ 덕에 따라 백성을 교화하는 정치가 실현되는 사회이다.

# 1-3

## 서양 윤리의 접근(수특 2강)

20)[20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질문에 모두 옳게 대답한 것은?

갑: 쾌락과 고통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강력성, 지속성, 확실성, 원근성이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의 가치가 그것을 낳는 행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산성과 순수성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범위, 즉 쾌락과 고통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도 고려해야 한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질문	대답	
		갑	을
①	쾌락을 주는 행위는 선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악한가?	예	예
②	도덕적 행위의 실천과 사회적 행복의 실현은 양립 가능한가?	예	아니요
③	행위를 평가할 때는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해야 하는가?	예	아니요
④	도덕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요	예
⑤	쾌락을 계산할 때는 쾌락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21)[19 ebs 수특, 주관식]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갑: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한다. 아울러 쾌락과 고통은 양적으로 계산 가능하며,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을: 우리의 규칙은 공리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규칙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즉 개별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규칙의 준수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그 규칙의 옳고 그름은 그것의 준수가 궁극적인 목적을 증진시키는지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병: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보기 】

- ㄱ. 갑은 병과 달리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ㄴ. 을은 갑과 달리 개별 행위의 유용성보다 규칙의 유용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 ㄷ. 병은 갑과 달리 모든 인간을 본래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 ㄹ. 갑, 을, 병은 공리성에 근거해 도덕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2)[19 ebs 수특, 객관식 같은 주관식] 학생 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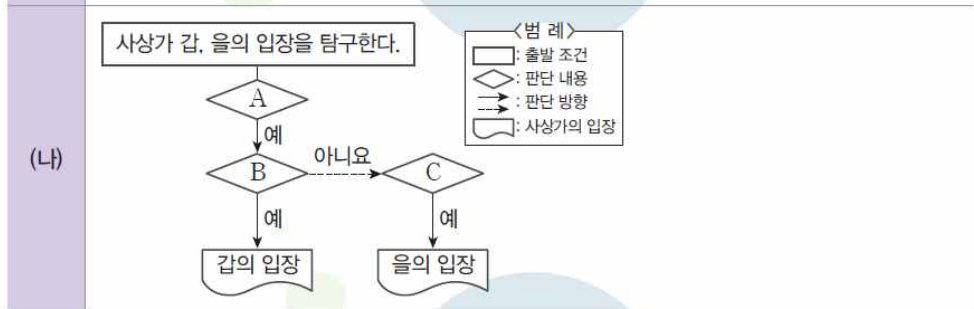
- 행위를 못하게 막는 공포가 아니라 행위를 하도록 복돋우는 공포가 바로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며, 우리가 뜻하는 공포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은 또한 책임의 대상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
- 모든 생명체는 더 이상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지 인간만이 생명을 위하여, 즉 그들의 자기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예외이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도덕 철학은 미래의 공포보다는 희망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	√
현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 기술의 발전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		√		√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존재는 책임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		√	√
인류의 존속을 위해 현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해 비호혜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			√	√	√	

23)[20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갑: 도덕적 삶의 본질적인 핵심은 '우리가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즉 도덕적 개인은 무조건 규칙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훌륭한 개인,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인은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을: 지성, 기지, 판단력, 그리고 용기, 결단력, 끈기 같은 기질상의 속성들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품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택하지 못하면 악하거나 해로울 수도 있다.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쓸모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은 일 자체로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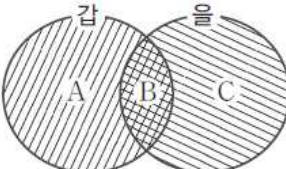
- ① A: 도덕은 행복 실현에 기여해야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가?
- ② B: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위인가?
- ③ B: 바람직한 행위는 선한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어야 하는가?
- ④ C: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인가?
- ⑤ C: 도덕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인가?

24)[19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성은 상호 무관심을 중시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의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여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성장이 이루어지는 때는 그들이 이 두 가지 입장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권리와 책임의 화합을 추구할 때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도덕적 원리는 경쟁하는 주장들 간, 곧 너와 나, 당신과 제3자 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원리이다. 주장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직 하나의 원리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의의 원리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고 생각한다.

- 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책임보다 개인의 권리 보장이 중요함을 경시하고 있다
- ② 어떠한 갈등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 도덕 원리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③ 도덕 문제가 발생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행동해야 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④ 개인의 주관적 감정보다는 이성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이 중요함을 경시하고 있다
- ⑤ 남성 중심적 정의 윤리와 여성 중심적 배려 윤리가 조화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25)[19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

(가)	<p>갑: 인간의 선뿐만 아니라 인간 외적인 사물의 선을 탐구해야 하며, 즉 목적 자체의 인정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확장해야 한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한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p> <p>을: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존재는 모두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단순히 이런저런 의지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과 이성적인 존재는 모두 자신에게 하는 행위든, 다른 이성적인 존재에게 하는 행위든 모든 행위에서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도 생각되어야 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div>

【 보기 】

- ㄱ. A: 자연과 인간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ㄴ. B: 인간이 따라야 할 정언 명법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 ㄷ. B: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 ㄹ. C: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예견해 도덕적으로 행위 해야 한다.

26)[18 ebs 수특]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도덕적 행위란 종(種)이 진화하는 동안 인간이 따르는 법칙에 대한 적응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당위로서의 도덕규범에 대한 경험을 통해 반성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p>	<p>인간의 진화 과정은 당위의 자연사(自然史)가 아닌 존재의 자연사만을 보여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떠한 당위로서의 도덕규범도 경험적 사실로부터 추론될 수는 없습니다.</p>
<p>그렇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협동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아 스스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도덕은 생물학적 원인에서 비롯된 경험적 사실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p>	<p>제 입장에서 판단할 때 당신의 주장은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고 생각합니다.</p>

- ① 도덕규범은 진화로부터 파생된 산물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② 도덕의 근원이 생물학적 원인에서 비롯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당위로서의 도덕규범이 경험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 ④ 도덕의 근거가 인간 종의 발생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인간의 생물학적 기원이 도덕의 합리적 기초로 작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27)[22 ebs 수특]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은 비록 충분히 신성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인격에서 인간성은 그에게 신성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창조물에서 사람들이 의욕하고 그에 대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한낱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오로지 인간만이 목적 그 자체이다. 인간은 곧 그의 자유의 자율의 힘에 의해, 신성한 도덕 법칙의 주체이다.

을: 인간은 누구나 어떤 형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고, 어떤 도시의 시민이며, 어떤 민족의 일원이다.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들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양한 빛과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것들은 내 삶의 주어진 바와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 ① 도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유덕한 품성을 길러야 하는가?
- ② 행위 결과의 유용성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가?
- ③ 공적 영역에서는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 원리로 적용해야 하는가?
- ④ 도덕적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결과가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가?
- ⑤ 오직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28)[20 ebs 수특]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윤리학은 뇌의 작동 방식을 탐구하는 신경 과학 분야의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도덕적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약물을 통해 도덕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나) 윤리학은 진화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타적 행동 및 성품과 관련된 도덕성은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 결과이다. 인간은 자기 생존과 번식 혹은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타적 행위를 한다.

- ① (가)는 뇌를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여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성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나)는 도덕적 행위를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적응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본다.
- ④ (나)는 과학이 도덕성 형성 과정이 아닌 도덕적 삶의 방향을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윤리적 행위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탐구 방법이 있다고 본다.

29)[22 ebs 수특, 주관식] 고르세용~

- 인간에게는 다른 모든 사물들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른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다. 가령 모든 사물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신의 존재가 보존되기를 갈망한다.
-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고유한 이성이라는 본성에 따른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다. 인간은 신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연적 경향성과 사회 속에서 살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 보기 】

- ㄱ.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보편적인 법이 있다.
- ㄴ.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 이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 ㄷ. 도덕규범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다.
- ㄹ.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성향을 지닌다.

30)[21 ebs 수특]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의식은 신체와 엄격히 구별되는 정신이 아니라 뇌를 비롯한 신체 기능을 포함한다. 따라서 마음은 더 이상 신체와 독립적인 정신의 순수한 산물이 아니며, 도덕적 동기와 책임은 뇌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로 성립한다.
- (나) 도덕은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에서 기인하고, 도덕적 판단은 규범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는 선천적 성향이며, 선천적 성향은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 ① (가):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별개이며, 도덕적 행위는 정신의 산물이다.
- ② (가): 도덕 판단 과정을 과학적 측정 방법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③ (나): 인간의 이타적 행위는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이다.
- ④ (나):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자연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 ⑤ (가), (나): 인간은 감정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성적인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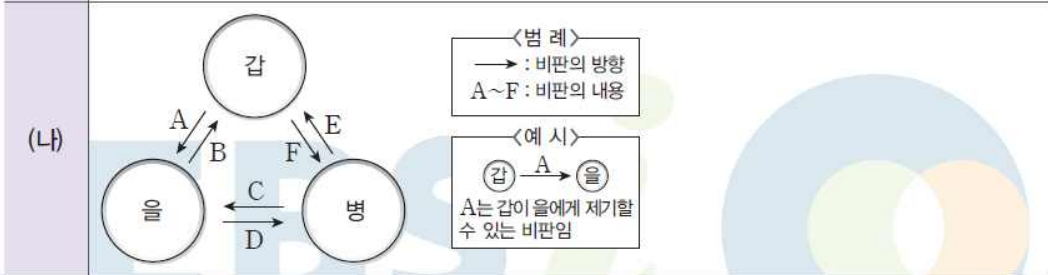
31)[21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선의지뿐이다. 지성, 기지, 판단력, 그 밖에 정신의 재능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들, 또는 용기, 결단성, 초지일관성 같은 기질상의 성질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도 있다.

- ① 용기, 결단성과 같은 기질들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인가?
- ② 행복 그 자체를 도덕적 행위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③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인가?
- ④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가?
- ⑤ 지성과 같은 정신적 재능은 도덕적 행위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인가?

32)[22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가) 갑: 선의 추구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징적으로 전통에 의해 규정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은 관행에 내재된 선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선에도 타당하다.  
 을: 어떤 행위가 가져오는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비교하여 차감했을 때 쾌락 쪽이 남는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고통 쪽이 남는다면 일반적으로 그른 것이다.  
 병: 도덕 법칙만이 존경의 대상일 수 있고 명령이 될 수 있다.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뿐이며 주관적으로는 실천 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 즉 그 법칙을 따르겠다는 준칙뿐이다.



- 【 보기 】
- ㄱ. A: 도덕적 선택을 할 때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 ㄴ. B, D: 선한 성품에서 나온 행위가 도덕적 행위임을 간과한다.
  - ㄷ. C, E: 도덕적 행위는 자연적 감정이 아닌 선의지를 따르는 것임을 간과한다.
  - ㄹ. F: 보편타당한 원리보다 구체적 맥락에 따라서 행위 해야 함을 간과한다.

33)[22 ebs 수특, 주관식]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모두 고르세요~

- 남성과 여성은 매우 다르게 독립과 친밀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청년기에 성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서 서로 다른 삶의 진리를 강조하게 된다. 남성은 자아를 규정짓고 그 힘을 부여하는 독립을 강조하고, 여성은 인간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친밀 관계를 강조한다.
- 여성들이 도덕 문제를 구성하는 데 고려해야 할 것은 책임과 배려의 개념이 핵심적이라는 것, 여성들의 사고에서는 자아관과 도덕관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남성들과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들의 관점을 포함하는 더욱 확장된 발달 이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보기 ||

- ㄱ. 남녀가 추구하는 도덕적 지향성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 ㄴ. 인간관계를 고려하고 맥락적으로 사고하는 도덕성을 중시해야 하는가?
- ㄷ. 남녀의 도덕적 사고의 차이를 성적 차별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하는가?
- ㄹ. 감정이 배제된 도덕 판단일수록 도덕적 가치가 더 높다고 보아야 하는가?

34)[23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성과 여성은 도덕적 딜레마에 접근할 때, 남성은 권리 혹은 정의의 관점에서, 여성은 배려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는 진리 또한 상반된다. 즉 남성은 독립의 중요성을, 여성은 친밀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상이한 관점은 두 개의 다른 도덕성에 반영되어 있는데, 독립은 권리 혹은 정의의 윤리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친밀은 배려의 윤리에 의해 지지된다. 권리 혹은 정의의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며, 배려의 윤리는 공감과 배려의 전제 조건인 이해심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도덕성 발달을 남성적 기준으로 측정하면서 다른 진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는 관점에는 한계가 있다.

- ① 남녀가 추구하는 도덕적 지향성은 동일하다.
- ② 남성과 여성은 같은 도덕적 발달 단계를 경험한다.
- ③ 감정이 배제된 도덕 판단일수록 높은 가치를 지닌다.
- ④ 여성은 남성보다 인간관계, 책임, 배려에 관심이 많다.
- ⑤ 여성의 도덕 판단은 보편적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35)[21 ebs 수특] 답은?

(가) 갑: 우리의 목적은 자연 과학의 대상인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지식과 활동의 영역을 넓히며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천연의 우물이나 분수를 모방해서 만든 인공 우물이나 분수도 있다. 우리는 천국의 물이라고 불리는 물을 만들어 냈다. 이 물을 마시면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이 연장된다.

을: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예 --> B{B}
                A -- 아니요 --> C{C}
                B -- 예 --> G[갑의 입장]
                C -- 예 --> E[을의 입장]
            
```

<범례>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

- ① A: 과학 기술 연구의 범위와 대상은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② B: 과학 기술을 인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잘못인가?
- ③ B: 과학 기술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④ C: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미래의 생명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은 악화되는가?
- ⑤ C: 과학 기술이 인류의 존속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생태학적 정언 명령에 위배되는 것인가?

36)[23 ebs 수특, 주관식]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행위에는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있다. 그런데 덕은 감정과 행위와 관련하고, 이것들 안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이 잘못을 범하는 반면, 중간적인 것은 칭찬을 받고 또한 옳게 성공한다. 그러므로 덕은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한 일종의 중용이다. 그러나 심술이나 파렴치, 절도나 살인과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보기>

- ㄱ. 중용의 자세로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한다.
- ㄴ. 덕 있는 사람은 좋아해도 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한다.
- ㄷ. 모든 행위와 감정에서 중용의 상태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 ㄹ. 덕은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에 존재한다.

37)[23 ebs 수특, 주관식] 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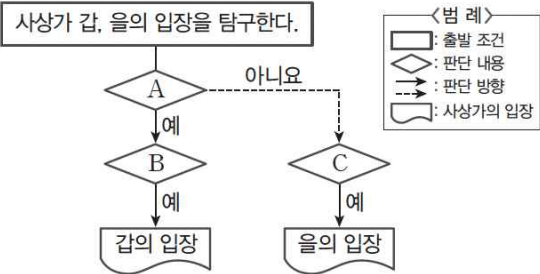
'공포의 발견술'은 구원의 예언보다는 불행의 예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공포의 발견술은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우리에게 더 쉽다는 사실에서 정당성을 찾는다. 악의 존재는 선보다 인간을 도덕적으로 더 행위 하도록 하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 '나쁜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보다 생존에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과학 기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인간 통제 영역 밖에 존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인간으로부터 독립되고 자율화된 과학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 통제'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더욱이 상황이 위급할수록 책임은 더욱 절실히 부각된다는 점에서 공포의 발견술이 우리에게 주는 책임은 절실하다. '인류의 존재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그 공포가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하고, 그 공포는 책임의 대상에 대해 염려하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행동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용기'를 말한다.

- 보기
- ㄱ. 인간에 대한 의무를 지닌 존재만이 책임의 대상이 된다.
  - 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져야 하는 당위를 수반한다.
  - ㄷ. 현세대 이외의 존재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가치만을 지닌다.
  - ㄹ. 현세대는 행위에 대한 사전적 책임과 사후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38)[23 ebs 수특 변형, 주관식] 갑, 을의 입장을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쾌락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고, 고통은 그 자체로 악한 것입니다.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강도와 지속성 등 여섯 가지 기준 외에 쾌락과 고통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를 참작해야 합니다. 공리의 원리는 쾌락의 양만을 계산하여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습니다.

쾌락도 쾌락 나름입니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에 대해 평가할 때는 쾌락의 양만을 따져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 <보기>
- ㄱ. A: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가?
  - ㄴ. B: 고통을 산출한 행위가 도덕적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불가능한가?
  - ㄷ. C: 어떤 행동이든 최대 다수의 행복을 증진할수록 옳은 것이 되는가?
  - ㄹ. C: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할 때 쾌락의 양적 차이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한가?

39)[23 ebs 수특 변형, 주관식] 알아서 있는 대로 몽땅 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골라!

갑: 인간은 누구나 이 친족에 속하고, 저 부족에 속하며, 이 민족에 속한다.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부족, 나의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빛과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것들은 내 삶에 주어진 바이고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을: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고유한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이다. 이 도덕 법칙은 가장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神性)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며,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 법칙이다.

<보기>

- ㄱ. 갑은 올바른 행위를 습관화해야 유덕한 성품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 ㄴ. 갑은 공동체의 전통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원이 된다고 본다.
- ㄷ. 을은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은 을과 달리 도덕적 의무보다는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40)[23 ebs 수특]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철로 수리공인 피어니스 게이지는 철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폭발 사고로 뇌의 전두엽 부위가 손상되었다. 그는 회복한 후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이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음을 알아챘다. 책임감 있게 일을 했던 그는 거짓말을 하거나 걸핏하면 화를 냈고,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두개골 손상에 기반하여 그의 뇌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그 손상은 전전두피질의 내측과 안와 부위에 국한됨을 알 수 있다. 또 게이지와 비슷하게 뇌의 전전두 부위가 손상된 다른 환자들을 관찰해 보면 이러한 환자들은 타인의 마음을 거의 이해하지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도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전전두피질의 정상 작동은 정상적인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올바른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보기>

- ㄱ.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과학적 측정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 ㄴ. 뇌를 촬영한 영상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 ㄷ.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육체와 분리된 정신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
- ㄹ.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과 정상인의 뇌 기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41)[22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다시 공포와 전율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두려움의 느낌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윤리적 의무이다. 현대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감안할 때 미래 인류가 맞이하게 될 가능한 위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한발 물러서야 하며,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았다면 가지게 될 두려움으로부터 겸손함을 지녀야 한다. 또한 지구 전체의 운영과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소비 습관으로서 겸손함을 부르짖어야 하며, 현대 기술의 능력 내지 권력에 대한 맹신을 지양하고 한계를 지키려는 절제를 실현해야 한다.

- ① 미래에 대한 지식은 책임 윤리의 토대가 될 수 있다.
- ② 기술이 인간에게 끼친 손해는 기술의 진보를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
- ③ 미래 세대가 겪게 될 삶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은 현세대의 책임감을 약화시킨다.
- ④ 겸손함은 개인의 생활 태도에 불과하므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
- ⑤ 기술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공포보다 기술로 인한 삶의 긍정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 1-5

## 밀의 자유론(수특 여기 저기)

☞ Zola Guide 밀의 자유론은 토론, 국가와 윤리, 정보 사회, 소통 윤리에서도 다루어짐.

\* 1-4는 생략함.

zola 풀어!!

42)[22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유 원칙은 자유롭지 않을 자유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이 원칙에 따라 개인은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누군가의 자유에 간섭하려고 할 경우 이러한 간섭의 유일한 정당한 목적은 자기방어뿐이다. 즉 사회의 구성원 중 어느 누구에게 그의 의지에 반하여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①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 각자가 주권자인가?
- ② 국가는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개인의 성장을 중시해야 하는가?
- ③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개인의 자유에 포함되는가?
- ④ 타인에게 해악을 주는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⑤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는 타인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43)[21 ebs 수특]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의견을 폐기하고자 할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여전히 옳지 못하다.

- ① 자신과는 다른 주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② 사람들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는가?
- ③ 다수의 생각을 소수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는가?
- ④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가?
- ⑤ 절대적 진리 도출을 위해 잘못된 견해는 폐기해야 하는가?

44)[20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1</p> <p>선생님께서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2</p> <p>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간에 최소화되어야 합니다.</p> 
<p>3</p> <p>그렇다면 제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 인가요?</p> 	<p>4</p> <p>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 때문입니다.</p> 

- ① 국가는 개인의 독립성에 대해 최소한으로만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해악 금지의 원칙을 따를 때만 정당한 것이라고 본다.
- ③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제가 정당하다고 본다.
- ④ 개인의 행동이 본인의 이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국가는 그 행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 ⑤ 사회적으로 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개인에게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고 본다.

45)[23 ebs 수특]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일체의 토론을 차단하는 것은 인간의 절대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면서 살아간다. 우리 인류는 스스로의 과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항상 명심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실제로 자신이 판단을 내릴 때에는 이를 거의 문제 삼지 않는다. …(중략)…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 부분 진리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일이 아주 흔하다. 어떤 문제에 관한 것이든 다수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드물거나 아예 없다. 따라서 대립하는 의견을 서로 부딪치게 하는 것만이 나머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① 일체의 토론을 차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 ② 인간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
- ③ 의견이 대립할 경우에는 항상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 ④ 인간은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 ⑤ 토론 과정에서 자기와 다른 생각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 2-1

## 삶과 죽음의 윤리(수특 3강)

zola 풀어!

46)[ebs 탐스런] 서양 사상가인 갑의 입장에서 (가)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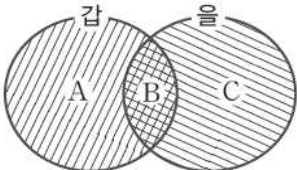
갑 :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고 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은 자기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인간은 죽음을 통해 삶의 유한성을 깨닫게 된다.

을 : 죽음에는 어떤 윤리적 의미가 있습니까?

갑 : \_\_\_\_\_ (가) \_\_\_\_\_

- ① 다른 세상으로 윤회하는 시작이 된다네.
- ②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된다네.
- ③ 인간 사회를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조건이 된다네.
- ④ 도덕적 주체로서 한 인간의 삶의 출발점이 된다네.
- ⑤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어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네.

47)[19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다 골라!

(가)	<p>갑: 현자(賢者)는 삶을 도피하려 하지 않으며, 삶의 종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삶이 그에게 해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삶의 부재가 해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현자는 긴 삶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향유하기를 원한다.</p> <p>을: 생명이 와서 태어나는 것을 물리칠 수 없듯이, 그것이 떠나가 죽음을 맞는 것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신체만을 길러 생명을 오래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슬픈 일이 아닌가? 세상의 일을 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하면 생명이 되살아난다. 생명이 되살아나면 참된 생명이 실현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div>

보기

- ㄱ. A: 죽음은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자연적 과정이다.
- ㄴ. B: 죽음에 대한 실존적 자각을 통해 사회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
- ㄷ. B: 죽음에 대한 고정 관념으로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 ㄹ. C: 죽음이 모든 존재의 원리인 도(道)에 근거함을 깨달아야 한다.

48)[19 ebs 수특] 다음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 죽음은 현존재에게 가장 고유하고, 가장 극단적이며, 다른 가능성들에 의해 능가될 수 없고,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다.
- 죽음과 관련해 '비본래적' 존재는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려 하고, 세상 사람(평균인)들의 일반적 기준을 자신의 궁극적 가치로 받아들이지만, '본래적' 존재로서 실존은 죽음을 자신에게 임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그동안 집착했던 일상적인 가능성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자각한다. 이를 통해 현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죽음으로의 선구(先驅)'를 한다. 즉 죽음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용기 있게 인수하면서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을 선택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현존재는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V	V		V	
현존재는 죽음으로의 선구를 통해 자신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물을 줄 알아야 한다.			V	V	V
현존재는 죽음 이후 영혼이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V			V	V
현존재는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을 회피나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된다.		V	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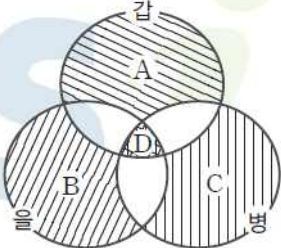
49)[20 ebs 수특]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가) | 인간은 사라질 육체에 갇혀 지내는 동안은 이데아에 관한 앎, 즉 참된 지혜를 얻기 어렵다. 인간은 순수한 영혼의 상태에 있을 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이 영혼을 정확히는 일 이라면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정확될 필요 없이 순수한 영혼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
| (나) | 인간은 오온(五蘊)의 집합에 불과하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라는 것도 이 다섯 가지가 모인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모여서 인간 생명이 형성되며 이 요소들이 흩어질 때 생명이 다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 인간은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한없이 되풀이될 수 있다. |

- ① (가)는 죽음을 육체에 갇혀 있던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라고 본다.
- ② (나)는 인간이 죽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죽음을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의 하나로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인간은 죽음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된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인간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고 본다.

50)[20 ebs 수특]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A~D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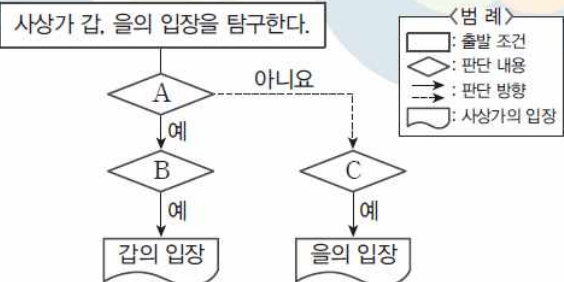
(가) 갑: 죽음으로 앞서 달려가 보는 순간에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자기의 고유한 죽음으로 달려가 보는 것은 현존재의 준엄한 과제이다.  
 을: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병: 우리는 육체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영혼만을 사용하여 참된 실재를 인식할 수 있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 ① A: 죽음 이후에는 모든 영혼의 활동이 정지된다.
- ② B: 죽음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③ C: 죽음 이후에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 ④ D: 죽음 이후에도 불멸의 영혼이 존재한다.
- ⑤ D: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다.

51)[21 ebs 수특, 주관식] 어떻게 푸는지 알지?

(가) 갑: 육체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무엇이든지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를 떠나야 한다. 영혼이 그 자체로 돌아가야 사물들을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한다. 반면 현자는 삶의 종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삶이 그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현자는 단순히 긴 삶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원한다.

(나) 

- 【 보기 】
- ㄱ. A: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가?
  - ㄴ. B: 죽음 이후에 인간은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가?
  - ㄷ. B: 죽음은 소멸하는 육체와 불멸하는 영혼이 분리되는 것인가?
  - ㄹ. C: 죽음은 원자가 해체되는 것으로 감각이 소멸함을 의미하는가?

52)[22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몸은 감각 능력을 스스로 가진 적이 없으며, 몸과 함께 태어난 영혼이 몸에게 감각 능력을 주었다. 영혼이 몸 안에 있는 한 결코 감각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영혼의 본성을 산출하는 원자들이 전부 없어진다면, 몸 전체 또는 일부가 계속 남아 있더라도 감각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만약 죽음과 같이 몸 전체가 분해된다면, 영혼도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운동을 할 수도 없게 되어서 감각을 잃게 된다.

을: 괴로움은 모두 갈애를 조건으로 생겨난다는 것이 관찰의 한 원리이고, 갈애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 버린다면 더 이상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찰의 두 번째 원리이다. 게으르지 않고 올바르게 이 두 가지 원리를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과보(果報)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현세에서 최상의 지혜를 깨닫거나, 천상에서 열반에 들어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게 될 것이다.

- ① 갑: 죽음 이후에 영혼은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진리를 인식한다.
- ② 갑: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져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다.
- ③ 을: 현생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④ 을: 업이 소멸되어도 삶과 죽음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⑤ 갑, 을: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다.

53)[22 ebs 수특, 주관식, 바나나 저격용] 골라!

죽음은 현존재에게 던져진 '끝'으로서 현존재의 가장 자기적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요, 그리고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확실한 것이며, 언제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다. 죽음의 불안에 의해 비본래적이고 퇴폐적이고 속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기를 자각하고 본래의 자기로 귀환할 수 있다.

【 보기 】

- ㄱ.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 주는 공포의 대상에 불과한가?
- ㄴ. 죽음에 대한 불안은 인간이 본래적인 자기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가?
- ㄷ.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죽음이 자신의 것임을 인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 ㄹ.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면 현존재는 생명의 유한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54)[23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존재는 죽음과 함께 더 이상 '세계-내-존재'가 아니게 된다. 죽음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세계 안에서 존재자들과 관계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존재가 죽음과 함께 생명이 없는 물질적인 사물이나 동물의 시체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죽음과 함께 현존재는 '고인(故人)'이 되며 그러한 존재로서 장례, 매장 등의 예식을 통해서 추모해야 할 존재가 된다. 고인의 유족들은 그를 경건하게 추모하면서 그와 함께 존재한다. 이와 같이 현존재는 죽어서도 다른 현존재와 공동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 ①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인식할 수 없는 존재인가?
- ② 현존재적인 끝남은 생명체의 종말과 구별되어야 하는가?
- ③ 생명의 유한성에서 벗어나야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가?
- ④ 죽음에 대한 불안은 인간이 본래적인 자기로 돌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가?
- 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 속에서만 참된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가?

55)[23 ebs 수특]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죽음은 삶의 시작[始]이고, 삶은 죽음의 무리[徒]이다. 사람의 삶이란 기(氣)가 모인 것이다. 기가 모여 태어나게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 것이다. 만약 죽음과 삶을 같은 무리로 본다면 우리에게 또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성인(聖人)은 살아 있을 때는 자연스레 행동하고 죽으면 만물의 변화를 따르므로 자연의 덕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을: 일체의 생명체는 모두 죽어 수명은 반드시 죽음으로 돌아간다. 업(業)에 따라 각각 선악의 과보를 받는다. 복을 닦으면 천상으로 올라가고 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나 도를 닦으면 태어남과 죽음을 끊고 열반에 든다. …(중략)…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 ①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으므로 죽음에 초연해야 하는가?
- ② 죽음은 고통이 없는 생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과정인가?
- ③ 삶과 죽음의 순환을 끊는 것이 인간의 이상적 경지인가?
- ④ 내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생의 도덕적 수행이 필요한가?
- 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인가?

# 2-2

## 삶과 죽음의 실천 윤리(수특 3강)+생명과학과 윤리(수특 4강)

zola 풀어!!

56)[19 ebs 수특]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환자를 자식처럼 온정적으로 대우해 왔던 의사의 부권주의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원칙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 이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라는 원칙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의료 상황에 대한 지식과 경험적 측면에서 볼 때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의사에게 더욱 더 충분한 설명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환자에게 특정 의료 행위를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한 후 해당 의료 행위를 허락하거나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 결정에 대한 존중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보기

- ㄱ.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 행위에 대해 충분히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
- ㄴ. 환자는 자신에 대한 의료 행위에 대해 조건 없이 동의해야 하는가?
- ㄷ.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성은 부권주의를 제약하는 핵심 요소인가?
- ㄹ. 환자는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 자율적 결정권을 갖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Zola Guide 부권주의라는 용어는 윤리나 사회 사상에서 중요한 개념임. 생운에서도 중요 사상가들의 글이나 쟁점형에서 사용되니 알아둘 것.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배와 보호의 특질을 가진 사회관계. 기업에서의 온정주의적 관리 따위가 그 예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1030&cid=42121&categoryId=42121>

57)[19 ebs 수특]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부모의 자연적 욕망이 자식의 행복 증진이라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우생학적 강화 시도는 허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는 중요한 의무가 된다.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 삶을 선택할 자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하지 않듯이, 우생학적 강화는 부모가 단지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을: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거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해 하는 우생학적 강화는 자녀의 자율성과 평등성을 훼손한다. 즉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사람을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체자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은 세대 간 자유롭고 평등한 상호성을 파괴한다. 삶의 시작을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자연적 우연성이야말로 자유와 주체의 전제 조건이다.

- ① 갑은 자녀의 행복을 증진하려는 부모의 자연적 욕망 충족을 도덕적 의무로 본다.
- ② 을은 부모에 의한 우생학적 강화는 부모와 자녀 간 평등한 상호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온전한 주체로서의 삶이 오직 우생학적 강화에 달려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우생학적 강화가 자신의 삶을 기획할 자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
- ⑤ 갑은 생식과 관련해 부모의 결정권이, 을은 자연적 우연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58)[16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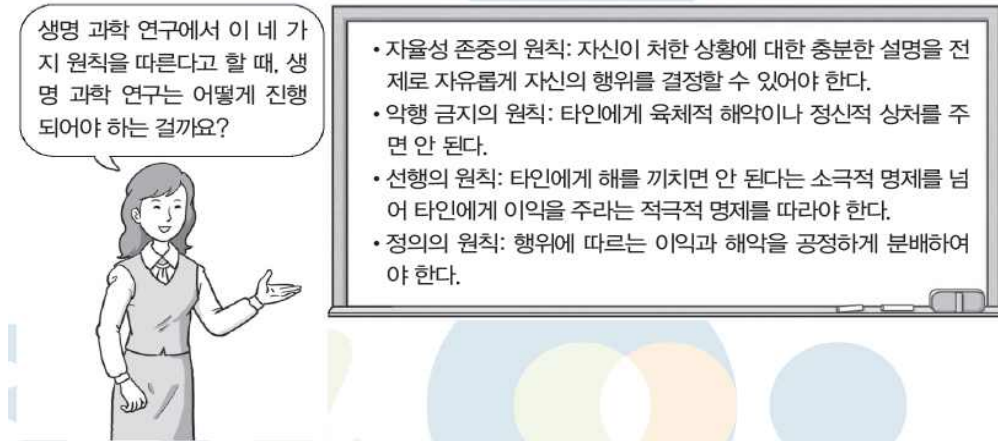
어떤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장 중 하나를 기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하나뿐인 심장을 기증하려고 한다면,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거부할 수 있고 또 거부해야 한다. 어머니의 결정이 충분한 설명에 의한 자발적인 것이며, 도덕적인 탁월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생명의 희생과 같은 과도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 ㉠ ]이/가 필요하다.

- ① 장기 기증 행위는 도덕적 가치와 무관하다는 태도
- ② 혈연적으로 관계 없는 장기의 기증만 허용하는 제도
- ③ 장기 기증자의 자율적 의지를 언제나 존중하는 태도
- ④ 장기 기증 행위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
- ⑤ 장기 기증자를 선택하고 수용하는 공적인 기준과 감독

59)[17 ebs 수특] 선생님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생명 과학 연구에서 이 네 가지 원칙을 따른다고 할 때, 생명 과학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걸까요?

-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전제로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악행 금지의 원칙: 타인에게 육체적 해악이나 정신적 상처를 주면 안 된다.
- 선행의 원칙: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소극적 명제를 넘어 타인에게 이익을 주라는 적극적 명제를 따라야 한다.
- 정의의 원칙: 행위에 따르는 이익과 해악을 공정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보기

- ㄱ. 갑: 연구는 피험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 ㄴ. 을: 연구 결과의 성과보다 연구 대상자의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 ㄷ. 병: 연구 시작 전에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ㄹ. 정: 연구 과정의 정보를 제한하여 연구 대상자의 두려움을 줄여야 합니다.

60)[17-10교-9] 다음은 우리나라 의료법의 일부 조항이다. 이 조항들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9조 <1> 의료인이나 의료 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0조 <1>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2>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의료인들 간에 환자의 정보를 가능한 한 공유해야 한다.
- ② 의료인은 낙태를 위한 성 감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③ 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환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 ④ 의료인은 임부에게 태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⑤ 의료인은 임부의 알 권리를 태아의 생명권보다 중시해야 한다.

61)[21 ebs 수특]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유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에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가 있습니다. 유전 질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유전자 치료이므로 두 가지 치료 방법을 모두 허용해야 합니다.</p> <p>1 갑 을</p>	<p>후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전자 치료는 허용해야 하지만,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태어날 인간 생명체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개입입니다. 그리고 유전적 개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유전적 개입 없이 태어난 사람과의 차이로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p> <p>2 갑 을</p>
<p>체세포 유전자 치료뿐만 아니라 유전 질환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까지 허용해야 합니다.</p> <p>3 갑 을</p>	<p>그렇다면 당신은 '㉠' (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p> <p>4 갑 을</p>

- ① 출생 이전의 생명체는 타인의 의지를 따라야 하는 존재이다.
- ② 치료 목적의 유전자 개입은 효용성을 위해 제한하면 안 된다.
- ③ 후세대의 유전자에 영향이 없는 유전자 치료는 허용해야 한다.
- ④ 유전학적 개입으로 태어날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 ⑤ 유전적 개입 여부는 개인의 자아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62)[13 ebs 수완 활용, 주관식]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갑: 성교가 없다는 점과 자의적으로 생식을 조작한다는 점에서 체외 수정이나 인간 복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체외 수정이 허용되듯이 인간 복제도 허용해야 해. 그리고 인간 복제술이 어느 누구에게도 해악을 입히지 않는다면, 인간은 인간 복제술을 통해 자녀를 얻을 수 있어.

을: 혈~ 너의 주장에 따라 생식용 인간 복제를 허용하면 [ ㉠ ]는 문제점이 있어.

- ① 인간의 생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 ② 인간 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
- ③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 ④ 양쪽 부모를 가질 수 있는 아기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복제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다
- ⑥ 인간 생명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 ⑦ 인간 종의 유전적 개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 ⑧ 줄기세포 추출 후 배아를 폐기해야 한다
- ⑨ 배아도 인간 생명임을 간과한다



63)[22 ebs 수특]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경우,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을: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가 인간 존엄성 보호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선택한다고 해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방법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갑: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인 당사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고한다면, 자신의 죽음 자체 뿐만 아니라 죽음의 방법까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을: 연명 치료 중단으로 자연적인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과 달리, 약물을 주사하는 등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개입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은 살인 행위입니다.

- ① 적극적 안락사가 아닌 소극적 안락사만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②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안락사의 방법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③ 불치병에 걸린 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④ 안락사는 당사자인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 실시되어야 하는가?
- ⑤ 모든 안락사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가?

64)[23 ebs 수특]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인간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이다.
- ② ㉠에서는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 ③ ㉡은 ‘자발적 안락사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이다.
- ④ ㉢에서는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 ⑤ ㉢은 ‘자발적 안락사는 옳지 않다.’이다.

# 2-3

## 성·사랑의 윤리(수특 5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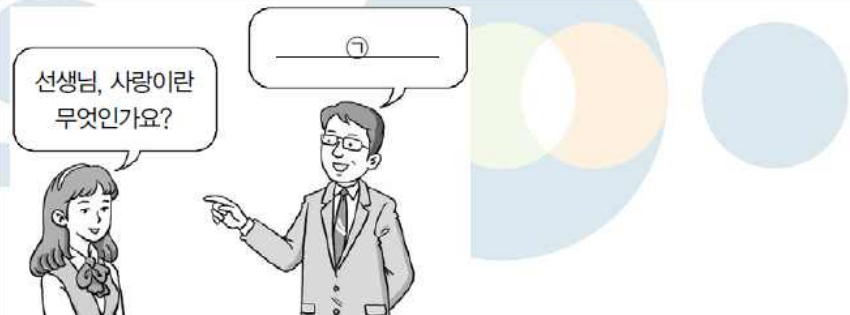
### zola 문제

65)[18 ebs 수특]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로 모르고 지냈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된 순간은 유쾌한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이 경험은 성적 매력에 의해 결합될 때 더욱 촉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사랑은 그 성격상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점차 친숙해지면 권태감으로 인해 최초의 흥분은 흔적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포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삶이 하나의 기술이듯 사랑도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은, 사랑이 모든 형태의 사랑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으로, 우리는 성숙한 사람에게서 그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① 사랑의 본질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 ② 사랑은 두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다.
- ③ 사랑은 상대에게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 ④ 사랑은 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타자를 나의 입장에서 볼 때 가능하다.
- ⑤ 사랑의 실패 원인을 알고 그 의미를 배울 때 사랑의 실패 극복이 가능하다.

66)[16 ebs 수특 응용, 주관식] (가)의 입장을 토대로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란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느끼는 일체감이란 있는 그대로의 그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 그를 나에게 필요한 이용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다.
(나)	

- ① 상대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 ②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소유하지 않는 것이지.
- ③ 상대와 자기가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는 것이지.
- ④ 상대를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것이지.
- ⑤ 상대의 성장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지.

67)[17 ebs 수특 응용]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의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의 욕구에 대해 배려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경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문제 상황>

A는 최근 여자 친구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아 매일 50건 이상의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zola 보내고 있다. 여자 친구는 A에게 그만둘 것으로 zola 부탁했지만, A는 여자 친구와의 관계 유지를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행동을 zola 계속하려 한다.

<보기>

- ㄱ.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라.
- ㄴ. 좋아하는 사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라.
- ㄷ. 좋아하는 사람의 고유한 삶의 영역을 존중하라.
- ㄹ.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 ㅁ. 감방 zola 가라!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⑥ ㅁ





68)[21 ebs 수특, 주관식] 고르세용~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타인에게 베푸는 것 또는 주는 것으로써 특징을 보인다. 또한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기본 요소가 발휘되어야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 네 가지 사랑의 기본 요소들은 서로 개념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성숙한 사랑을 성취할 수 있다. 사랑만이 인간 존재에 대한 비밀을 알아가는 올바른 길이고,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

보기

- ㄱ. 사랑은 어머니와 태아와 같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다.
- ㄴ.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 가는 합일의 과정이다.
- ㄷ. 사랑의 대상을 존중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 ㄹ.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상대방의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69)[22 ebs 수특] 문제 푸는 방식 알죠? 적절한 것은?

<p>요즘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성차별의 문제점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p>  <p>1</p>	<p>남성에 의한 여성의 예속은 여성 개인에 대한 불공평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p>  <p>2</p>
<p>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인류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p>  <p>3</p>	<p>여성의 재능 활용 기회를 막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사회적 유용성이 증진됩니다.</p>  <p>4</p>

- ①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동등한 존재이다.
- ② 교육의 기회는 남녀의 본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 ③ 양성평등의 실현은 인류 전체의 유용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 ④ 여성은 생물학적인 이유로 남성보다 분별력이 열등할 수밖에 없다.
- ⑤ 여성은 남성에 대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제도적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70)[22 ebs 수특] 적절한 것은?

우리는 사랑에 대해 감상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인격을 발달시키고,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사랑이 기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은 수동적 복종이나 생물학적인 합일이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입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능동적인 힘이며, 인간이 타인과 분리되는 벽을 허물어 버리고 타인과 결합시키는 힘입니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가 되지 않음으로써 서로 남는다는 역설이 성립합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입니다.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나의 생동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0

- ① 사랑하는 상대를 구속하지 않고 존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② 상대의 요청에 따라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다.
- ③ 사랑은 상대와 하나가 되기 위해 자신의 독립성을 버리는 것이다.
- ④ 사랑은 능동적으로 상대를 통제하여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것이다.
- ⑤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를 위한 선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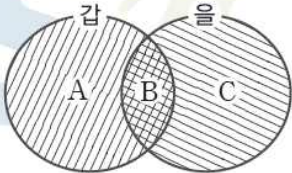
71)[20 ebs 수특, 주관식] 고르셈.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이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고 하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사랑의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이해 등이다. 이것들은 성숙한 인간, 곧 자신의 힘을 생산적으로 발휘하고 스스로 일한 결과만을 차지하려고 하고 전지전능이라는 자아도 취적 꿈을 포기하고 오직 순수한 생산적 활동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내적 힘에 바탕을 둔 겸손을 터득한 사람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련의 태도이다.

보기

- ㄱ. 사랑은 상대방을 나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보호하는 것인가?
- ㄴ. 사랑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능동적 활동인가?
- ㄷ. 사랑의 자발성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희생으로 완성되는가?
- ㄹ.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돌보는 것인가?

72)[20 ebs 수특]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가)	<p>갑: 성의 고유한 가치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며, 사랑은 타 인격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있다.</p> <p>을: 성의 목적은 정당한 혼인을 통하여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이다. 출산에 기여하는 성만이 성의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 ① A: 성적 관계에서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 ② A: 성적 관계의 주된 목적은 생식적 가치의 실현에 있다.
- ③ B: 오직 쾌락만을 위한 성은 비도덕적이다.
- ④ C: 성을 결혼과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
- ⑤ C: 성적 관계에서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다.

73[23 ebs 수특] 다음 가상 대담의 갑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1</p> <p>선생님께서서는 사랑을 기술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요?</p> 	<p>2</p> <p>만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려 한다면 우리는 음악이나 그림, 의학과 같은 또 다른 기술을 배우고자 할 때와 같은 과정을 밟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p> 
<p>3</p> <p>그렇다면 사랑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p> 	<p>4</p> <p>사랑은 보호, 책임, 존경과 지식을 포함합니다. 이런 요소가 없는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되기 어렵습니다.</p> 

- ①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소유하는 것이다.
- ② 사랑은 자신의 개성을 상대방과 교환하는 것이다.
- ③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빠지는 것이다.
- ④ 사랑은 상대방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 ⑤ 사랑은 능동적인 활동이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하는 것이다.

## 2-4

## 결혼과 가족의 윤리(수특 5강)

☞ Zola Guide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통 윤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하다. 학습이 소홀해지면 틀리기 쉽다.

## zola 문제

74)[18 ebs 수특] 유교의 입장에서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은/는 두 성(性)이 합하여, 위로는 종묘를 섬겨 제사의 주인이 되며,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계승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을 서약하는 의식이다. 따라서 군자는 이를 중히 여겨 감히 소홀히 하지 않는다.

- ① 부모와 사회의 인정을 받아서 한 가정을 꾸리는 의식이다.
- ② 이해타산적 합리성에 기초해 서로 함께하겠다는 서약이다.
- ③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을 다하고 의리를 지키겠다는 서약이다.
- ④ 두 가문의 남녀가 결합하여 상호 헌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식이다.
- ⑤ 위로는 조상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를 낳아 가계를 잇겠다는 서약이다.

75)[16 ebs 수특]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 ㉠ ]은/는 동양의 고전 “논어”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 의미는 대체로 인간다움[仁者人也]을 의미하거나 사랑의 정신[愛人也]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조건적이며 구별된 사랑을 말하는 것이어서 오직 [ ㉠ ]의 정신을 온전히 체득한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기>

- ㄱ. 부모의 뜻을 헤아려 무조건 복종하고 실천할 때 완성된다.
- ㄴ. ㉠은 자신의 사욕을 버리고 예(禮)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 ㄷ. ㉠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덕목으로는 효(孝)가 있다.
- ㄹ. 형제자매와 친구, 친족 사이에도 존재해야 할 당위 규범을 말한다.

76)[19 ebs 수특]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 명덕(明德)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
- “선생께서는 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서경에서 말하기를 ‘효일지니! 오직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으며,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정치에 확산시켜 나가라.’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정치인데 어찌 정치에 실제로 종사해야만 곧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겠소.”

ㄱ 보기

- ㄱ. 가족 간의 친애를 버려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
- ㄴ. 가족을 다스리는 원리는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와 다르지 않다.
- ㄷ. 가족과 국가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부터 수양을 해야 한다.
- ㄹ. 가족 공동체처럼 국가 공동체도 도덕을 바탕으로 이끌어져야 한다.

77)[21 ebs 수특, 주관식] 있는 대로 고르세요~

(가)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는다. 움직임이 극에 이르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에서 음이 생성된다. 고요함이 극에 이르면 다시 움직임이 시작된다.
(나)	남녀 간에 분별이 있는 다음, ㉠ 간에 의리가 있고, ㉡ 간에 의리가 있는 다음, 부자간에 친애함이 있고, 부자간에 친애함이 있는 다음, 군신 간의 바른 도리가 있게 된다.

보기

ㄱ. 동기간으로 서로 사양하며 지내고 공경해야 하는 관계이다.  
 ㄴ. 혈연적 관계로 가족 공동체와 신의를 지켜야 하는 관계이다.  
 ㄷ.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는 상경여빈을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ㄹ.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백년해로를 지향해야 하는 관계이다.

78)[21 ebs 수특, 주관식] 있는 대로 고르세요~

㉠

○○에게

네가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다. 옛 선현에 의하면 ㉡ 은/는 부모님께서 남겨 주신 몸을 함께 받았으니, 나와 더불어 한 몸과 같은 것이라 했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서로 간격이 있게 보아서는 안 되며, 음식이나 의복의 있고 없음을 모두 똑같이 해야 한다. 지금 사람들이 ㉢ 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니? ... (후략).

보기

ㄱ. 서로 위계를 지키며 존중해야 하는 관계이다.  
 ㄴ. 형우제공과 효를 함께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ㄷ. 인륜의 시작으로 상부상조하는 호혜적 관계이다.  
 ㄹ. 혈연적 관계로 친밀함을 추구해야 하는 관계이다.

79)[22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의 관점에서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셈.

-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우며,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다우며,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가정의 법도가 바르게 될 것이니, 가정을 바르게 하면 천하가 안정된다.
- ㉠ 은/는 인륜(人倫)의 시작이므로 지극히 친밀한 사이지만 지극히 조심해야 할 관계이기도 하다.
- ㉡ 은/는 나와 더불어 한 몸과 같은 존재이며,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수족(手足)의 관계이다.

보기

ㄱ. ㉠은 혈연관계로 가정 내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다.  
 ㄴ. ㉡은 부모에 대한 효(孝)를 함께 실천해야 하는 동기간이다.  
 ㄷ. ㉠은 ㉡과 달리 서로에 대한 정조(貞操)를 지켜야 하는 동반자이다.  
 ㄹ. ㉡은 ㉠과 달리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다.



80)[22 ebs 수특, 주관식] 다 골라 주세요용~

○○에게

요즘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가 무너진 것 같아 너무 염려스럽네. 요즘 사람들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보면 흔히 공경보다도 사랑의 정이 지나치게 드러나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지나친 친밀함은 서로의 잘못을 보기 힘들게 만들고, 잘못된 행동으로 흐르기도 쉬우며, 잘못된 행동을 보더라도 덮어 두기 쉽다네. 부모와 자식은 서로 각자의 도리를 실천하도록 해야 하네. 만약 부모의 뜻이 올바른 도리를 해치지 않는 것이라면 자식은 그 뜻을 받들고 따르되 털끝만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네. 하지만 그중에 올바른 도리를 해치는 것이 있다면 자식은 온화한 기색과 기쁜 얼굴빛을 지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 드리되 거듭 사실을 설명하여 반드시 들어주시도록 해야 하네.

- 【 보기 】
- ㄱ. 부모와 자식은 예로써 대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ㄴ. 부모가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간언할 수 있다.
  - ㄷ. 부모는 자연적 애착을 바탕으로 자식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어야 한다.
  - ㄹ. 부모와 자식은 혈연관계이므로 서로에 대해서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81)[14 ebs 수특] (가), (나)에서 강조하는 효의 실천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

(가) 오늘날 효는 부모를 물질적으로 잘 봉양함을 말하나 개나 말을 보더라도 모두 그 어미에게 그럴 수 있으니, 공경함이 없으면 어찌 동물과 구별할 수 있겠느냐?

(나)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가장 큰 것은 어버이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어버이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며, 마지막은 부모의 의식주 생활에 걱정과 불편이 없도록 잘 보살피는 것이다.

- ① (가) : 부모님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거야!
- ② (가) : 부모님을 물질적인 측면에서 잘 모셔라!
- ③ (나) : 가장 먼저 지위를 얻어 이름을 떨쳐라!
- ④ (나) : 부모의 뜻을 헤아려 부모를 기쁘게 해 드려라!
- ⑤ (가), (나) :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똑같이 사랑해라!

82)[23 ebs 수특]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어진[仁]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도 서게 해 주고 자신이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남도 이루게 해 준다. 따라서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나)	㉠은/는 같은 어버이에게서 태어나 기운이 같으며[同氣],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관계이다[手足之義].

- ① 가정 내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인간관계이다.
- ② 가정 내에서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이다.
- ③ 상호 간에 정조를 지켜야 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 ④ 상호 간에 자애[慈]와 효의 실천이 중시되는 관계이다.
- ⑤ 장유유서의 도리를 실천해야 하는 천륜(天倫)의 관계이다.

83[23 ebs 수특]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태극이 동(動)하면 양(陽)을 낳고, 동이 극에 이르면 정(靜)하고, 정하면 음(陰)을 낳는다. 정이 극에 이르면 다시 동한다.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멈춤에 있어 서로 뿌리가 되어 음과 양이 두 표준으로 선다.
(나)	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 ㉠ ]이/가 있고, [ ㉠ ]이/가 있고 난 다음에 부자가 있으며, 부자가 있고 난 다음에 형제가 있다. 한 집안의 친족은 이 셋뿐이다.

- ① 서로 존중하고 상호 보완적인 천륜(天倫)의 관계이다.
- ② 수직적 위계 구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뢰의 관계이다.
- ③ 각자가 항상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관계이다.
- ④ 상호 간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는 위계적 관계이다.
- ⑤ 삶의 동반자로서 상호 간에 보완하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다.

**zola amazing 정답!!**

- 1) ㄴ, ㄷ
- 2) ③
- 3) 3번-①, 4번-②
- 4) ⑤
- 5) ④
- 6) ③
- 7) ②
- 8) ㄱ, ㄹ
- 9) ④
- 10) ㄴ, ㄷ
- 11) ④
- 12) ㄱ, ㄹ
- ☞ Zola Guide 제시문이 '유학'이 아니라 '도가'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과 독해력이 필요함. ㄱ은 동양 사상이면 동의할 내용임. ㄹ은 도가에만 해당함.
- 13) ①
- 14) ③
- 15) ③
- 16) ②
- 17) ③
- ☞ Zola Guide 바나나 강의에서 했던 선지임. 틀린 분은 바나나 강의 혹은 교재 다시 확인할 것! 문장(선지) 바나나에 나오는 내용임.
- 18) ㄱ, ㄴ, ㄷ, ㄹ
- ☞ Zola Guide 사상가는 도가 중 노자임. ㄴ-부쟁, ㄷ-겸허
- 19) ④
- 20) ①
- 21) ㄱ, ㄴ, ㄹ
- 22) 을
- 23) ③
- 24) ⑤
- 25) ㄴ, ㄷ
- 26) ③
- 27) ⑤
- 28) ④
- 29) ㄱ, ㄷ, ㄹ
- 30) ③
- 31) ④
- 32) ㄷ, ㄹ
- 33) ㄴ, ㄷ
- 34) ④
- 35) ⑤
- 36) ㄱ, ㄹ
- 37) ㄴ, ㄹ
- 38) ㄱ, ㄷ
- 39) ㄱ, ㄴ, ㄷ, ㄹ
- 40) ④
- 41) ①
- 42) ③
- ☞ Zola Guide 선지 ⑤의 '침해'라는 표현은 '제한' 또는 '간섭'으로 바꾸는 것이 좋음.
- 43) ⑤
- 44) ③
- 45) ③
- 46) ②
- 47) ㄷ, ㄹ
- 48) 병
- 49) ①
- 50) ③

51) 다, 르

52) ②

53) 나, 다

☞ Zola Guide 당시 ‘ㄴ’에 대한 질문이 많았음. 뇌들 머리 속의 지식이나 뇌피셜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 없고, 제시문 ‘속’으로 들어가서 판단하길 바람. ㄴ은 제시문에서 그대로 확인 가능함. 눈 앞에 있는 제시문의 정볼르 놓치는 제시문 바나나 저격용으로 적절한 문제임.

54) ②

55) ②

56) ②

57) ③

58) ⑤

59) 가, 나, 다

60) ②, 자료 분석형임. good~

61) ④

62) ②, ③, ④, ⑤, ⑥

☞ Zola Guide 주의할 문제임!

63) ①

64) ④

65) ④

66) 1, 2, 3

67) ④ (⑥도 가능하지만 수능에서 다를 가능성은 낮음)

68) 다, 르

69) ③

☞ Zola Guide 그림 속의 남자 얼굴 눈팅해 두셈. 질적 공리주의자인 ‘말’임.

70) ①

71) 나, 르

72) ③

73) ⑤

74) ②

75) 나, 다, 르

☞ Zola Guide 인(仁)에 대한 글임.

76) 나, 다, 르

77) 다, 르

78) 가, 나, 르

☞ Zola Guide ‘인륜’인 관계와 ‘천륜’인 관계 구분할 줄 알아야 함. 수업 시간 때 얘기했음. 바나나가 되지 말 것!

79) 나, 다

☞ Zola Guide ‘정조’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국어 사전 찾길 바람. 시험지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남의 국어 및 학습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수능까지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갈 것!

80) 가, 나

81) ④

82) ⑤

☞ Zola Guide 제시문은 유가의 공자임. 제시문 잘 눈팅해 둘 것.

83) ⑤